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조사·연구한 '탈북자 증언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의 공개를 계기로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 75%가 "공개체제를 목격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북한사회 전체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거부하고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과장되거나 소문을 증언한 것도 있을 것이다. 미국 등 서방세계와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 차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불참하거나 기권한 것은 북한체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상을 방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북한문제 해결이 북한 인권문제보다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전략

적으로 다루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의 생존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권이 담보되어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전쟁에서 확인했듯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지 못하면 우리 민족 상당수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는 먼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환경을 조성해서 경제난 해소와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개선은 외부 압력도 중요하지만 민주화 등 내부동력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미국이 제기한 '고립압살정책의 두 개의 기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6월, 북한이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의 '구체안'에 합의하고도 1년여 동안 6자회담과 남북대화 나오지 않은 것은 인권법 제정 때문이다. 따라서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北, 인권도 '핵'이다



불자의 눈 는설위행 기명사설

국보 제86호 경천사10층석탑이 새로운 모습으로 공개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5년부터 해체 복원에 들어가 10년 동안 210군데 보존처리를 마치고 모두 142개 부재로 해체되었던 이 탑을 3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세웠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28일 개관한다 하니 일반인들이 이 탑을 보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경천사10층석탑 복원이 주목받는 까닭은 문화재적·역사적인 의미도 각별하지만, 암질조사·약품실험 등 보존처리와 3차원정밀스캔작업에 의한 부재 실측, 레이저를 사용해 오염물을 제거 등의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지는 등 과학적인 문화재복원처리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뒤바뀐 불화 도상들의 위치를 바로잡았고, 상륜부의 원형을 복원하는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번 복원은 한층 발전된 보존처리기술과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지만 박물관 실내에 우뚝 솟은 경천사10층석탑을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까닭은 보존처리를 필요로 하는 석탑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보존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많은 석탑에서 박락과 변색, 그리고 기울어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할 경우 석탑의 원형이 훼손됨은 물론, 복원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이 점에서 최근 시작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석기탑 모니터링은 문화재보존관리의 합리화 측면에서 주목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면 불필요한 해체복원을 막을 수 있고, 보존처리의 적절한 시점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란 말이 있다. 이 말의 속 뜻은 힘과 정성을 들여 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탑은 바로 불탑으로서 뜨거운 신앙심과 정성을 다해 탑을 세우게 된다는 유래한 말이다. 우리 문화재는 이러한 정성과 뜻 그리고 슬기와 뜻이 아우러져 태어난 것이다. 우리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문화재보존관리에 정성을 기울이자.

■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 위원)

'연대' 민명

심민섭



폐사지를 적극 보존해야 하는 이유

머릿속에 그리는 상상의 사찰이 더욱 아름답지않을까!

이강록(웃다뉴스)



이렇게 들었다 부동산 투기

만약 너희들이 모든 교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려거든 언제나 자기의 현 위치가 지극히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늘 흡족해하라. 만족스러움을 이는 마음에는 곧 부귀와 안락과 평안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불수반열반교계경)

전 세계에 불어 닥친 부동산 투기 열풍은 민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광기어린 욕심을 대면하게 한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타임지가 미국 부동산 열풍이 텍사스의 황량한 사막에 까지 몰아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텍사스 리오그란드 지방의 사막 땅값은 최근 6개월 사이 12배나 뛰어들었다.

어디 미국뿐이라. 프랑스, 중국 등 땅과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부동산 투기 열풍이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욕망처럼 땅값은 하늘을 찌른다. 우리나라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은 전 국토에 아파트를 난립하게 만들면서 나라와 국민을 갇아 먹고 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한사람이 서른여섯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부동산을 이용, 갖가지 편법으로 천문학적 돈을 벌고 이제 주부들까지 그 대열에 나섰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8월말 국약처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고 '부동산 투기와 결전'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허접은 있고, 빠져 나갈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투기와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에 앞서 민족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야 한다. 넓고 안락한 아파트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귀와 안락이 깃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 천미희(취재부 차장·부산주재)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친일파 후손의 물염치한 소송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이 수락산 내원암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낸 데 대해 교구본사인 불전사가 위험법률심판제청을 냈다는 <현대불교> 538호 기사를 보았다.

명백한 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물염치한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역사적인 죄인의 후손들이 그리도 몇몇몇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인정 받으려 하는 우리 사회의 일면이 씩씩한 마음과 부끄러움이 앞선다. 특이나 지금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발효된 때가 아니던가.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건재하고 오히려 득세하는 과오를 겪었다. 1977년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후손들이 재산찾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여기에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도 재산찾기 소송을 냈다고 하니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남아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친일행위로 얻은 대가마저 재산권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과연 그 법이 정당함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정의의 여신'을 상징으로 삼는 법원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홍희(광주시 서구 유촌동)

연못에 동전 투척 삼가해야

지난 일요일,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양양 낙산사를 방문했다. 사찰에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순간, 낙산사 앞의 연못에 관광객들이 동전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낙산사 뿐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방문해보면 관광객들이 종종 갖가지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물속에 던지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재미를 위해, 혹은 소원을 빌며 던지는 동전은 물속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더구나 분수가 아닌 연못의 경우에는 동전 회수도 어려워 그대로 방치된 동전들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전을 던져 넣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비단 사찰 연못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01년 서울대공원에서 죽은 잔뼈가 굵은 해부학자 동전이가 동전 124개나 나와 충격을 주었다. 이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물속에 동전을 던져 넣는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차라리 동전을 모아 대웅전에 비치돼 있는 보시함에 넣거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보내는 것이 어떨까.

아무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동전을 던진다지만, 생각 없이 던진 동전에

효험이 있을 리 만무하다. 불자들이라면 애꿎은 곳에 동전을 던지며 요행을 바라기보다, 바르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복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현승(안산시 고잔동)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포교를

지난 일요일에 강화도 소재의 몇 사찰에 다녀왔다. 매일 수만 명이 찾는 이들 사찰에는 어디에도 범포 안내의 간판마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운장대니, 와불상 조성이니 하는 안내지만 잔뜩 있어 관광객이 만드는데만 열을 올리는가 생각될 정도였다. 저절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알려주는 일이 중요한 텐데 하는 생각에 이어 스님들이 평생 배운 불교공부를 왜 신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임장료로 받은 돈이나 시주 돈으로 불교와 사찰을 알리는 팸플릿 한 장이라도 왜 못 만드나. 진정 천신, 보살, 아라한, 연각, 성문이 계시다면, 이제 그곳을 떠나 이곳 사바세계로 오셔야 한다.

그곳을 다 비워놓고라도 사바세계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참으로 불교를 살려 주셔야 한다.

한국의 스님과 신도님들 참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강록(웃다뉴스)

심봤다! 제2의 산삼

심마니 토종오가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 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중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중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 등 저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생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02)447-9114
HYUN PUNG F&B CO.LTD

정각사 화엄불교대학

기초반 2기 수강생 모집

- 개강: 9월 1일(목) 10시
- 특별법문: 보광 대선사(해인사 보림선원장)

正法을 배우는 불자, 교양 있는 불자 능력 있고, 봉사하는 불자가 되도록 최고의 교수진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주요강좌

- 보광 대선사법문 (보광 큰스님 / 보림선원 선원장)
- 예불문 · 반야심경 (정영스님 문학박사)
- 기초교리 (최봉수 동국대 교수)

특 강

- 불교와 상담 (이근후 교수), 시인과의 만남 (조병우 교수)
- 풍수지리 (이기만 서장), 명상수행법 (임승택 교수)
- 자녀교육과 입시 대책 (민족인재사관학원 홍성일 이사장)

제출서류: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 강 료: 한학기 5만원 (입학금 1만원)
※ 입학자격 - 제한없음

문의전화: 031)398-8001

특 전: ● 졸업 후 조계종 포교사 응시자격 부여
● 경전반 진학

소원이 꼭 성취되는 절 대한 불교 조계종 **정각사**

홈페이지 www.junggaksa.com (검색어: 정각사)
국민은행 계좌 639001-01-098061 (대한불교 조계종 정각사)